

폐목재에 새 생명...나주 영산강정원 곳곳 '동물 조형물'

시민 재능 기부로 고사목·폐목재 활용 조형물 제작 코뿔소·토끼·곰·여우 등 다양한 동물, 나들이객 반겨

나주 영산강 정원 곳곳에 다양한 동물 모습을 알증맞게 표현한 목재 조형물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인기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나주시에 따르면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는 영산강 정원에서 오는 13일까지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4 나주영산강통합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축제를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나주 영산강 정원'은 저류지 중심부를 기준으로 서측 56만 1983㎡(17만평)에 '은 가족이 다시 찾고 싶은 정원'을 테마로 기존 정적인 정원과 차별화된 콘셉트를 갖춘 명소로 조성되고 있다.

나주시가 고사목 재활용 방안에 골몰하고 있을 때 소식을 접한 목공 기술자 7명이 재능기부 의사를 전했고 정원 한 편에 목공 작업장이 마련됐다.

재능기부에 나선 이들은 통나무를 건조하고 거친 표면을 다듬어서 우선 방문객이 쉬어갈 나무 의자(벤치) 16개를 제작했다.

의자 크기에 맞춰 잘려 나간 나무 조각에도 모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등근 형태의 나무 밑동은 토끼, 곰, 고양이, 눈사람, 여우, 달팽이, 부엉이가 됐고 나뭇가지는 빨 달린 사슴으로, 못생긴 통나무는 원형 그대로를 살려 코뿔소로 만들었다.

여기에 마한 시대 소도에서 유래한 오리 모양의 솟대, 익살스러운 표정의 허수아비, 새집 등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형물은 관람객 동선에 맞춰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잔디광장, 메밀꽃밭, 연못 등 곳곳에 설치했다.

목재 조형물이 집합한 정원 느티광장에서 축제 기간 내내 '동물과 함께하는 영산강 정원 작은 음악회·마술쇼'가 열린다.

해당 공연은 익명의 한 기업인이 재능기부에 동참하기 위해 제안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4 나주영산강축제를 앞두고 아름다운 정원과 색다른 볼거리, 안락한 휴식 공간을 함께 만들어준 재능·물품 기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영산강 정원에 고사목, 버려진 나뭇가지를 재활용해 목공 기능인들이 재능기부로 제작한 나무의자, 동물, 솟대 등 각종 조형물이 설치됐다. (나주시 제공)

이상 기후에...국향대전 대형꽃탑 개화 지연

18일~11월 3일 함평엑스포공원 여름 길어지며 개화 2주 늦어질듯

함평군이 대한민국 국향대전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함평군은 18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마스크트가 될 대형꽃탑 조성을 진행 중이다.

국화 화분 4000본이 설치되는 꽃탑은 함평엑스포공원 주제관 앞에 위치했다. 2개의 꽃탑은 각각 쫄나무와 회망나무로 명명된다.

대형 꽃탑과 더불어 성탄절을 맞아 설치되는 성탄트리, 마법의 성, 국향대교, 무지개터널 등 다채로운 국화 작품들이 각각각색 꽃들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올해는 평소보다 여름 기온이 높고 길어지면서 국화 개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국향대전 국화는 평소보다 2주 기량 만개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변이 어두우면 개화가 빨라지는 국화 특성상 주변 조명을 조절하는 등 개화 시기를 조절해 만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함평군이 18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앞두고 대형국화 꽃탑을 조성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전했다.

함평국화의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대서 열린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백종원 개발 장성 새싹삼 바비큐 '히트다 히트'

새싹삼 레몬소스 입은 치킨 바비큐 장작불에 여러번 구워 바삭 담백 황룡정원서 판매...연일 매진 기록

장성군 대표 특산물 새싹삼과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의 손맛이 만나 '초대박 메뉴'가 탄생했다.

황룡강 가을꽃축제 주무대 황룡정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장성 새싹삼 치킨 바비큐'가 연일 매진 기록으로 화제다.

장성군에 따르면 새싹삼 바비큐는 장성지역 업체에서 공수한 양질의 닭을 여러 단계에 걸쳐 장작불로 정성스레 굽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훈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맛이 스며드는 데다 기름기까지 쫄 빠져 담백하다. 여기에 특제 새싹삼 파우더를 입혀 고급스런 풍미까지 더해졌다.

황룡정점은 새싹삼 레몬소스다. 새콤달콤한 맛과 새싹삼 특유의 향이 훈제 치킨 바비큐와 절묘한 조화를 이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장성 새싹삼 치킨 바비큐는 장성군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지역 외식업체,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식품영양학과,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장성 특화음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장성군은 지난 2023년 (주)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장성산 농특산물을 이용한 상무대 상생급식 메뉴 30여 종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화음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군이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와 공동 개발한 새싹삼 치킨 바비큐.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 농업인과 외식업 종사자,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장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미식도시' 완성을 향한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많이 찾아 주셔서 다양하게 준비된 지역 먹거리들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세계유산 지원 공모사업 3건 선정

VR 활용 활쏘기 등 국비 3억3000만원 확보

화순군은 국가유산청 지원사업인 '세계유산 지원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유산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3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은 청동기시대 생활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고인돌 선사체험장 내에

서 VR을 활용한 활쏘기 등 각종 선사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원을 펼치며 고인돌 시대의 문화를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고인돌 홍보 콘텐츠

개발과 고인돌유적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한 가치공유 홍보 프로그램이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은 지난 2017년 준공된 고인돌선사체험장이 노후화돼 배수시설과 움집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재관 화순군 고인돌사업소장은 "화순 고인돌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향유하는 세계유산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강진군, 벼 대체 작물 논콩 지원 강화

벼 대비 손 덜가고 2배 이상 매출...내년 1000ha까지 확대

강진군이 벼 대체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논콩 지원을 강화한다.

강진원 군수는 벼 대체 소득작물로 집중 육성 중인 논콩 재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논콩 전문 단지 회원들과 만나 소통했다.

지난 7일 오전에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남부농협 회장님을 비롯하여 논콩 전문단지 작목반 15명의 회원이 참석해,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한 격식 없는 대화와 정보 공유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논콩 재배 애로사항,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판매처 확대 등 논콩 재배 확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남부농협 논콩 전문단지는 2024년 도 공모사업인 '전략작물(콩) 전문단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1억 93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결과 올해 80 농가가 참여해 54.2ha의 논콩 재배를 이루어냈다.

논콩은 육묘와 이앙을 위해 일시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벼와 달리 제조 작업을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와 농작업에 여유가 있으며, 전략작물직불금 등 직불사업 대상이 되어 벼에 비해 2배 이상의 매출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진군은 2023년부터 쌀 적정 생산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작목으로 논콩 육성에 집중하기 시작해, 첫 해 176ha이던 논콩 재배 면적은 2024년에는 358ha로 203% 이상 증가했다.

강진군의 논콩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연초부터 전문가 초청 교육, 농업기술센터의 권역별 재배기술 현장교육과 함께 논콩 재배 시 전략작물 직불제 ha당 200~350만 원에 군 자체사업인 논콩 재배 육성 지원사업으로 ha당 50~150만원의 추가 지급하는 등 필지별 상황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인 400만원의 지원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군은 올해 논콩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해, 논콩 재배단지에 파종기 등의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수해에 취약한 논콩의 재배 안정을 위해 논콩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9000만원을 지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벼를 대체할 고소득작목인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 최대 수준인 7억 원을 군비로 편성해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논콩 관련 예산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논콩 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보다 내년에도 더 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용구산 들꽃축제 '문전성시'

공연·체험·꽃차 특별전 등 4000여명 방문객 성황

담양에서 열린 첫 들꽃축제가 마무리됐다.

담양군은 최근 월산면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용구산 들꽃축제가 4000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월산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축제는 '오마이담양, 달피 꽃이야기'를 주제로 1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용흥사와 달피수바래길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풍성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담았다.

가수 김성록과 '미스트롯 2' 김태연의 축하공연을 비롯, 매직 버블쇼, 풍선아트, 명랑운동회 등 행사가 이어졌고, 인절미 떡메치기, 압화-머그컵-에코백 만들기, 문화재 탐방 스텝 투어 등 각종

체험 활동과 즐길거리도 풍성했다.

특히 월산 2계 돌에에 조성한 산책로 '달피 수바래길'을 개방, 담양군 산악연명회를 비롯해 많은 관광객이 산책과 함께 월산의 자연을 만끽했다.

이와 함께 '꽃차 명인' 송희자 머무랑다래랑 대표의 '달피 꽃이야기' 꽃차특별전을 마련해 월산의 야생화를 알리기도 했다.

국중문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주민들과 용흥사, 축제추진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지 월산면장은 "앞으로도 문화관광 명소를 잘 가꾸어 사계절 찾고 싶은 월산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장흥 정남진시네마에 영화 관람 오세요

14일~20일 작은영화관 기획전...14편 30회 무료 상영

2024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전남 장흥군 정남진시네마에서 펼쳐진다.

이번 기획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다.

기획전에는 다양한 장르의 14편의 영화가 30회 상영되고 영화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동안 4회 진행된다.

상영작에는 한국인 최초 오스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미나리', 일제강점기 시대 운동주 시인의 치열했던 삶을 보여주는 '동주', '명몽이', '남매의 여름밤',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등이 예정돼 있다.

연계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미술공연과 풍선아트가 19일 '용감한 돌고래 벨루와 바닷속 친구들' (더빙)과, '로보키플리와 함께 배우는 안전 이야기' 영화 상영 후 진행된다.

이번 기획전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상영작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 현장발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흥군 정남진시네마는 2015년 10월 전라남도 1호로 개관한 작은영화관이며, 지난 3월 관객들의 편안함을 위해 프리미엄 의자로 전면 교체했다.

2014년부터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지역 관객들과 만나오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공모 선정된 전국의 16개 작은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